# '연금술사' 코엘료 "BTS에 무한한 존경심 느껴"

## "BTS는 누구든 품어주는 바닷가" 'BTS 국제학술대회' 영상 대담

베스트셀러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코엘료는 14일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에서 개막한 '제 3회 BTS: 국제 학술대회'에 보낸 특별 대담 영상에서 "BTS는 아무 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며 "나는 방탄소년단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파울로 코엘료는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팬을 자처해왔다. 2020년에는 자신의 SNS 계정에 방탄소년단을 비난하는 사람 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코엘료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방탄소년단이 부당하 게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며 "내가 방 탄소년단을 옹호했을 때 많은 팔로워가 이탈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당한 것을 고치 도록 힘써야 한다"며 "방탄소년단을 위해 단호하게 내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며 덧붙였다. 코엘료는 "방탄소년단은 마치 텅 빈 바닷가 같다"며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끼 리, 운동하고 싶은 사람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끼리 (방탄소년단의 이름 아래) 모일 수 있다"며 방 탄소년단의 포용력을 설명했다.

작가는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와 연대 활동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글쓰기는 정말 외로운 작업"이라며 "따라서 아 미들과 협업할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얼마든지 협업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안정선 한국농아동교육연구소 대표도 참가해 '농아미' (수어를 제 1언어로 쓰는 방탄소년단 팬)로서 느낀 BTS의 영향력에 대해 발표했다.

2019년 방탄소년단의 로스앤젤레스 콘서트에 참여했던 안 대표는 콘서트장에 수어 통역자가 있고 스무 명 이상 농아미가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에 돌아온 안 대표는 '미국은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되 지?'라는 마음으로 소속사에 이메일을 보내 (2019년 서울 콘서 트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탄소년단.



14일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BTS: 국제 학술대 회'에 특별 영상을 보내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지지를 표했 다.

안 대표는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이메일을 통한 소통이 잘되 지 않자 수어 통역을 요구하는 트윗을 올렸다. 많은 아미들이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결국 소속사로부터 콘서트에 수어통 역사를 배치하겠다는 응답을 받아냈다.

안 대표는 "BTS의 영향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온다고 생각한 다"며 "지금은 농아의 문화생활 접근성 비율이 10%도 안 되는 데 (BTS의 영향력을 통해) 90% 이상으로 늘어나기를 바란 다"라고 덧붙였다.

2020년 영국 킹스턴대에서 처음 열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BTS와 아미가 만들어내는 현상을 연구하는 'BTS 국제 연구 공동체' (International Society for BTS Studies)와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휴머니티와의 조 우'를 주제로 BTS와 아미가 팬데믹과 전쟁 속 혼란스러운 현시 대에 인간성 회복을 위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야 기를 나눈다.

## 김희재 광주 등 4개 도시 콘서트 취소 공연기획사, 사기 혐의 고소

가수 김희재(사진)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공연기획사 측이 김희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광주 등 4개 도시 콘서트가 취소됐다.

공연기획사 모코 이엔트(ENT )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 엘파트너스는 가수 김희재와 소 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 씨를 전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 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모코 ENT 측은 "김희재와 소속사 측은 콘서트를 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계약금과 출연료 때문에 공연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재는 7월 9~10일 서울을 시작으로 23~24일 부산, 30  $\sim$ 31일 광주, 8월  $6\sim$ 7일 창원 등 4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할 예 정이었으나, 출연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불발됐다.

소속사는 모코 ENT가 티켓 오픈 때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 분 공연 출연료를 먼저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모코 ENT 측은 소속사와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협조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모코 ENT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1월 3 회분 공연 출연료를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나머지 5회분 출연료도 추가로 지급했지만 소속사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 다"고 말했다.

## 네이버시리즈 1위 웹소설 '화산귀환' 누적 매출 300억원 달성

네이버시리즈의 1위 웹 소설 '화산귀환'이 누적 매 출 300억 원을 달성했다.

네이버시리즈는 14일 자 사 플랫폼 독점 웹소설인 '화산귀환'이 누적 다운로 드 수 3억7000만 회, 누적 매출 300억 원을 돌파했다 고 밝혔다.

'화산귀환'은 무림 고수 였던 청명이 환생한 뒤 망 한 자신의 문파인 '화산파' 를 부활시키려 고군분투하 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2019년 네이버시리즈에 서 독점 연재된 이래 현재



웹소설 '화산귀화'

까지 1290화까지 공개됐다. 무협 웹소설의 인기를 선도한 이 작품은 최근 78주 연속으로

네이버시리즈 웹소설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웹툰도 연재를 시작 했으며 현재 네이버웹툰 수요일 연재작 가운데 1위로 꼽힌다.

비가 작가는 "연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예상조차 못 했던 곳 까지 왔는데 많은 분이 도와주셨고 긴 연재 기간에 응원해주신 독자님들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네이버시리즈는 네이버웹툰에서 운영하는 웹툰・만화・장르소 설 플랫폼이다.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2** 062)529-0315, 010-3606-5632

석 당 화 랑

동구궁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초 대 화 랑

# '리미트' 이정현 "스릴러물 경찰 역할은 남자만 하나"

## 문정희·진서연 등 내세운 범죄 스릴러 日 노자와 히사시 소설 원작…다음달 개봉

"스릴러 장르를 너무 좋아하는데, 범죄물 경찰 역할은 항상 남자배우만 하잖아요. 여성들이 주체가 된 범죄스릴러는 처음 같아요."

여성 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운 범죄 스릴러 '리미트'가 다음달 관객을 찾는다. 이정현은 14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주부님들이 영화를 보시면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출산한 이정현은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 소은 역을 맡았다.

'리미트'는 아동 연쇄 유괴사건을 소재로 삼은 스릴러다. 피 해자 엄마의 대역을 맡은 소은이 사건을 해결하던 중 의문의 전 화를 받으면서 위기에 빠지는 이야기다. '독전'에서 마약중독자 연기를 신들린 듯 선보인 진서연이 아이를 유괴당한 엄마 연주



영화 '리미트'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정현.

용의자 집단도 여성이 이끈다. 문정희가 사건의 열쇠를 쥔 혜

진 역할로 악역에 도전한다. '모가디슈'의 대사관 사무원 박경 혜, '기생충'의 지하실 남자 박명훈이 함께 빌런팀을 이룬다.

일본 작가 노자와 히사시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이승준 감 독이 장편데뷔작 '스파이' (2013) 이후 9년 만에 메가폰을 잡았 다. 이 감독은 "한국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히 재밌겠다 싶어서 오랫동안 각색했다"며 "'스파이'가 액션 스케일에 중점을 뒀다 면 '리미트'는 캐릭터 중심 영화"라고 소개했다.

제작진과 배우들은 여성 캐릭터와 빠른 전개, 모성애가 이끄 는 스토리를 강조했다.

진서연은 "여배우 셋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된다. 부모자 식 관계를 연결고리로 한 이야기여서 몰입도가 높다"며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감정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 다.

문정희는 "경찰과 유괴범, 피해자 모두 명분이 있고 개인적으 로는 이해된다"며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 다는 점을 관객도 느끼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2** 062)573-3112, 010-8221-3119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2** 062)226-9966, 010-3002-0816

####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2** 010-2315-2058

## 동 양 철 학 원

동구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2** 062)224-7687, 010-2611-7687

##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2** 010-7495-1577

**2** 010-4755-9294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2** 062)223-0177, 010-3642-7320

## 성수동꿀꽈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 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2** 061)337-7987, 010-7732-6955

##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2** 062)572-2323, 010-9509-4422

## **2** 010-5459-9664

무크 광주세정점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2** 062)233-0067, 010-3634-7264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2** 062)370-9151

##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5** 062-225-4445, 010-3603-3064

동구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서양화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 남도철학원

북구천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수강생개인지도

**2** 062)522-9653, 010-8645-2254

####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2** 062)672-9809, 062)672-6376

####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2** 062)233-9952, 010-4469-0360

####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2** 010-8610-8373

## 박 당 화 랑

동구궁동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